

곡성군, 목요일 야간 민원실 지속 운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매주 목요일(공휴일 제외),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신청·주민등록등초본 발급·민원 접수 등

곡성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제공되며, 맞벌이 부부, 직장인, 학생 등 평일 근무 시간에 공공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목요일 야간민원실'은 여권 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정·고충민원 접수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증가한 해외여행 수요에 대응해, 여권 관련 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카드결제 가능) 등이 있으며,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기존 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정문수 민원실장은 "야간민원실을 통해 업무 시간 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곡성군은 올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민원인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민원 행정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민원서식 외국어 번역본 제작을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곡성=양해영기자



나주시보건소, 2024년 주요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지도 포함 전직원 대상...세부 추진 방법 등 공유

나주시보건소가 보건소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보건소 주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각 팀장들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까지 포함한 80여 명을 대상으로 브리핑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보건사업 세부 추진 방법과 지침 등 주요업무계획 전반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공무원 기본 행동강령 등 복무에 대한 기본교육과 실질적인 민원인 대응 요령, 친절 교육도 병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보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채본부

'하니움 푸드존' 점포 운영자 모집

휴게음식점 가능자, 2월 29일까지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 신청·접수

화순군은 20일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하니움 푸드존에 조성 중인 점포(4개소)를 운영할 휴게음식점 영업 가능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포 운영자 모집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화순군청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093)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jms4215@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점포 운영자 선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이 선정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화순군 홈페이지(열린군정)고시공고(공고문)를 참고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군, 쌀 적정 생산 대책 집중 추진

다음달 31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및 전락작물 직불제 신청

담양군이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쌀 이외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전락작물 직불제'의 신청을 받는다.

전락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밭살을 벼 재배를 대체하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다. 쌀 소비감소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값 안

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올해 벼 재배면적 26,000ha 감축을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전락작물 직불제를 이행하고 있다. 26,000ha는 서울시민이 90일간 소비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담양군 자체 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해 ha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전락작물직불금은 밀, 가루쌀, 조

사료, 논콩에서 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용 옥수수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계에 두류와 가루쌀 재배 시 지급 단가를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며,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 지원 희망 농가는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농업유통과 (061-380-2717)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쌀 과잉 공급 방지와 쌀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해당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맥류·양파 재배농가 현장 기술지원 추진

생육재생기 비료 살포·병충해 방제법 등 전파... 27일까지

장성군이 월동작물인 맥류·양파 생육재생기에 맞춰 이달 27일까지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생육재생기는 겨우내 성장을 멈춘 작물에 새 뿌리가 나면서 다시 성장하는 시기를 말한다. 평균기온 0°C 이상 4일 이상 지속되면 생육재생기로 판단한다.

올해 1월까지 장성지역 평균기온은 1.5°C, 최저기온은 -3.0°C였다. 평년 대비 1°C 이상 높아 2월 중순부터 생육재생기가 시작됐다. 이에 장성군은 지난 13일부터 현장 기술지원단을 농가에 파견해 비료 사용법과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을 전수하고 있다.

생육재생기의 작물은 많은 양분을 필요로 한다. 맥류는 10아르(㏊) 당 9~12kg의 요소를 살포해 뿌리 활력을 증진시키고, 보리밭기(담압) 작업으로 서릿발 피해와 작물 쓰러짐을 방지한다.

양파는 10아르 당 요소 17kg, 염화칼리 8kg을 생육 상황에 맞게 살포하고,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 방제를 실시해 노균병을 예방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맥류와 양파는 생육재생기를 잘 지나야 고품질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며 "필수 관리법이 농가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성군의 맥류 파종면적은 266.6헥타르(ha)로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했다. 쌀값 하락에 대비한 대체작목 육성에 주력한 결과다. 앞선 6일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국산 밀 재배기술 교육을 열기도 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군, 제16기 농업인대학

교육생 2월29일까지 모집

구례군은 지역농업 특화 발전을 선도할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16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교육생 40명을 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은 '자원식물'을 주제로 휴식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총 23회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두류 재배, 고사리재배, 허브의 활용, 차 산업 마케팅, 약용작물 등 다양한 자원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들에게 유익한 농업기계 안전 사용, 현장 견학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교육 시간 중 70% 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 자격이 주어지며, 교육 신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haha164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